

# 상교우서 上教友書

2025년 9월호(통권 124호)

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일 2025.8.20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99(망월동) 전화 031 792 8541 홈페이지 <http://www.casky.or.kr>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십이단’(十二端, 주요 기도)에 수록된 기도문 소개 (2)

- 예전 십이단 기도문, 『현주성교공과』와 『현주성교십이단』의 대조 -

『천주성교십이단』(줄여서 ‘십이단’이라고 함)은 한국 천주교회가 성립하여 국가에 의해 금압(禁壓, 금지와 탄압)을 받던 시기에 신자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익혀야 하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현재에 사용되는 『가톨릭 기도서』 제1편과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부록에 실린 ‘주요 기도’는 ‘십이단’ 기도문이 수정·추가된 것입니다.

‘십이단’이 언급된 기록은 교회 측 자료[신자들의 증언록, 선교사제의 서한]와 관변 측 자료[포도청등록]에서 확인됩니다. 신자들은 가족, 회장 등에게 ‘십이단’을 배워 세례를 받았으며, 천주교를 전파할 때 교리(문답)와 ‘십이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관아에 끌려가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십이단’ 등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십이단’과 관련된 신자들의 기록을 지난 상교우서 3월호(118호)부터 7월호(122호)까지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회서적에 나오는 ‘십이단’ 기도문은 1860년대부터 확인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현재의 ‘주요 기도’와 비교해 보면 용어와 표현방식 등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록된 기도문의 순서도 다르고, 기도문이 빠지거나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저번 호부터는 ‘십이단’에 수록된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현주성교공과』(1862년)와 『현주성교십이단』(1886년)을 비교하면서 현재 기도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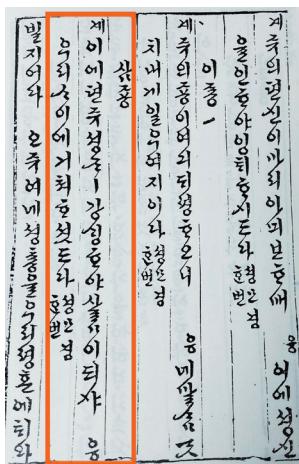


『현주성교십이단』 1896년 활판본과 1902년 활판본 [오른쪽]

## 예전 십이단 기도문 - 삼종경(삼종경)[현재 삼종 기도]

\* 『년주성교공과』에는 ‘삼종경’에 십이단 표시(†)가 없지만, 『년주성교십이단』에는 두 번째로 ‘삼종경’이 나옵니다.

년주성교공과 (1862년) / 년주성교십이단 (1886년)	1887년 이후 추가된 기도문
<b>삼종경</b> [하듯을 즈음과 오시와 하진 후에 외오라]	
<b>일종</b> (계) 주의 텐신이 마리아께 보호해 (응) 이에 성신을 인후야 잉티후시도다. [성모경 훈 번]	(*이전 기도문과 동일)
<b>이종</b> (계) 주의 종이 여기 디령후오니 (응) 네 말슴고치 내게 일우여지이다. [성모경 훈 번]	(*이전 기도문과 동일)
<b>삼종</b> (계) 이에 편주성조   강성후야 사름이 되사 (응) 우리 스이에 거쳐후셨도다. [성모경 훈 번]	(계) 편주의 성모는 우리를 위후야 비르샤 (응) 우리로 흥여곰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바를 엊개 흥소서.
<b>빌지어다.</b> 오죽여 네 성총을 우리 령훈에 틱와 주사 우리로 흥여곰 임의 텐신의 보호으로 네 아들 그리스도의 강임후심을 알았시니 그 고난과 십자가를 인후야 부활후 는 영복에 나르게 흥시다 우리주 그리스도를 위후야 흥소서. 아멘	(*이전 기도문과 동일)



『년주성교공과』(1862년) 삼종경 중 ‘삼종’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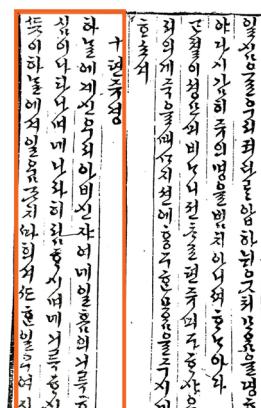
『년주성교공과』(1887년) 삼종경 중 ‘삼종’ 부분

\* 1887년에 간행된 『년주성교공과』의 삼종경 ‘삼종’ 부분에 ‘계응’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간행된 『년주성교십이단』과 『년주성교공과』의 삼종경에는 추가된 계응이 실렸습니다. 이는 현재의 ‘삼종 기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기도문] 삼종 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예전의 '일종'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예전의 '이종'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예전의 '삼종' [추가 부분 포함]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예전의 '빌지어다' 이하 부분

## 예전 십이단 기도문 - 편주경(천주경)[현재 주님의 기도]

편주성교공과 (1862년) / 편주성교십이단 (1886년)	편주성교공과 1권 (1862년) '편주경'
<p>편주경</p> <p>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신 자여 네 일晦의 거룩하신이 나타나며 네 나라히 림흔시며 네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일음 그치 따희서 또한 일우여지이다. 오늘날 우리게 일용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면해주야 주심을 우리가 우리게 득죄훈 자를 면해주야 좀 그치 흐시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 구하소서. 아멘</p>	

\*공과에는 제목 앞에 '†'(십이단) 표시가 있음

## [현재 기도문]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 예전 십이단 기도문 - 성모경(성모경)[현재 성모송]

현주성교공과(1862년) / 현주성교십이단(1886년)	현주성교공과 1권(1862년) '성모경'
<p><b>성모경</b></p> <p>성총을 그득히 닦으신 마리아여 네게 하례하느이다 주   너와 훈가지로 계시니 녀인 중에 너   총복을 밟으시며 네 복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야 비른쇼서. 아멘</p>	

\*공과에는 제목 앞에 '+'(십이단) 표시가 있음

## [현재 기도문]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7호, 9월 30일 간행 예정

###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